

風水書 『地理人子須知』 山圖의 지형표현 연구

이형운* · 성동환**

The Expression of Landform in Feng-shui Map in Chinese Feng-shui Manual *Jiriinjasuji*

Lee, Hyung-yun* · Sung, Dong-hwan**

요약 : 山圖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한 지형을 풍수지리적 공간모형에 빗대어 표현한 지도로 풍수지리의 穴과 명당을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명나라 때 발간된 대표적인 풍수서인 『地理人子須知』에 게재된 산도를 분석하여 지형표현의 특징을 산도의 시점, 중심지향적 지도, 투시점, 이중적축척, 山論, 혈의 세부적 표현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地理人子須知』에 게재된 산도의 지형표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점은 부감법이 사용되었으며 묘지의 중심, 즉 혈처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지형이 묘사되는 중심지향적 지도로 혈처 주위의 중요지형은 실제 지형보다 과장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묘지에서 관찰되지 않는 중요지형은 시점이동을 통해 관찰하고 이를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산론 부분에는 지리적 위치와 산맥의 흐름과 체계, 풍수적 특징, 묘지의 좌향과 주변지형, 발복 정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산도의 방위성은 상대적인 것이고, 축척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으나 명당 공간과 거점도시 및 방위성을 갖는 지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축척을 사용하거나 근경·중경·원경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다중적 축척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주요어 : 산도, 풍수, 지리인자수지, 지형표현, 중심지향적 지도, 이중적 축척

Abstract : A feng-shui map(山圖) represents the most ideal natural landform on a map of feng-shui space model, highlighting propitious spots and grave sites in terms of feng-shui. This study made an analysis into feng-shui maps featured in the Chinese feng-shui manual *Jiriinjasuji* published in the Ming dynasty of China and did research on the following points regarding the traits of landform expressions: viewpoints of feng-shui maps, perspective points, center-oriented maps, double map scales, mountain theories, detailed expressions of propitious spots, etc.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landform expressions in the Chinese feng-shui manual *Jiriinjasuji* are as follows: the viewpoint technique was aerial one; the maps were center-oriented, that is to say, the center of grave sites or propitious spot was depicted in detail; and often the important terrains around grave sites were exaggerated or deleted compared with real landforms. In addition, other vital landforms not observed from grave sites were depicted with viewpoints moved and were represented in greater details. The part of mountain theories had the following points as their main subject matter: geographical locations, overall orientations of mountain ranges, topographical traits, grave seat directions, surrounding terrains and extent of fortune-bringing. The directions of the maps were relative and there was no definite concept of scales.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maps made use of the double scale technique when expressing the terrains that have propitious space, logistical cities or directional importance. Furthermore, they often utilized multiple scales in expressing near views, mid-range views and distant views.

Key Words : feng-shui map, feng-shui, *Jiriinjasuji*, expression of landform, center-oriented map, double scale of map

1. 序 論

山圖(geomantic map 또는 feng-shui map)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한 지형을 풍수지리적 공간모형에 빗대어 표현한 지도로 풍수지리

의 혈과 명당을 표현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단순한 빛자리의 그림으로 이해되지만 지형을 풍수지리 명당공간으로 형상화한 그림지도이다. 산도는 前代로부터 풍수적 吉地라고 전해오는 특정 지역이나, 조상의 무덤이 위치한 특정한 지역을 답사하

* 대구가톨릭대 지리학과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umin4143@korea.com)

** 대구한의대 대학원 풍수지리관광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eng-shui&Tourism)(dhsung@dhu.ac.kr)

고 얻은 공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풍수적으로 空間을 구현한 지도이다. 산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 제작되며, 제목 및 그림, 山論의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풍수적 개념으로 그린 五星圖나 穴形圖, 砂格圖, 山脈圖 등의 풍수 概念圖와 구분된다.

산도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해서는 山水圖, 龍穴圖, 明堂圖 등으로 불리고, 족보와 관련해서는 墓地圖, 先塋圖, 先山圖 등으로 불린다. 또한 王陵과 관계될 때에는 陵殿圖, 山陵圖 등으로, 胎室과 관계될 때에는 胎室圖 등으로 불린다.

산도는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풍수지리이론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초기에는 도읍을 건설하고, 왕릉, 태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국왕에게 보고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¹⁾ 산도는 국왕의 국정운영 및 왕실의 중요한 행사의 참고자료로 운영되었고 당시에는 풍수그림의 의미보다는 지도로서의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산도가 사대부의 족보에도 삽입되기 시작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宗譜의 영향²⁾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동일 先祖에서 파생된 宗法의 연결고리와 산도의 표현법인 祖宗의 산맥의 흐름이 이념적으로 부합하고, 山論을 통하여 묘지의 주인공인 선조와 그 묘지의 후손들의 역량을 간접적으로 기록한 글로 종법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도는 이러한 중중의식과 결합하여 조상의 묘지를 풍수적 명당국면으로 그려 명당 발복을 기원하고, 중중구성원의 결속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盧禎植(1977)에 따르면, 산도는 국가적 사업으로 그린 왕릉도 및 태실도와 족보에 게재된 산도와 함께 고지도의 한 부류로서 特殊地圖에 해당된다. 산도를 고지도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본다면 산도의 제작기법은 관찬지도에 비해 현저히 그 품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지도의 지형표현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우리 조상들의 전통 지리관과 지형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산도 연구는 몇몇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미진한 산도 연구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는 중국의 풍수서인 『地理人子須知』속에 게재된 산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윤홍기의 선구적인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윤홍기(1992)는 중국의 지도학 전통에 끼친 산도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地理人子須知』에 게재된 산도의 지형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체계화하였다. 특히 산도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산맥과 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지형표현방식의 특징을 밝히고, 명당국면을 감싸는 산맥의 경사도를 단면도로 설명하였다. 또한 서구의 지형도와 비교되는 산도의 특징을 중심지향지도(centre orientated map), 지도의 방위기호(map symbol for direction), 투시점(point of perspectives), 지도의 축척(map scale), 산맥의 중요성(importance of mountain ranges)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윤홍기의 선구적인 연구는 산도를 독립된 한 분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도연구가 미진한 학계의 실정을 고려할 때 그의 선구적인 연구 성과는 고지도 연구는 물론이고 풍수지리의 본질에 관한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산도가 단순한 그림이 아닌 고지도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산도는 제작기법이 다양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도는 중국에서 발간된 풍수 고전 중에서 『地理人子須知』의 산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地理人子須知』의 제작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地理人子須知』에 삽화된 산도의 제작기법과 지형표현 특성을 산도의 판본과 구도, 산도의 구성 요소, 산론의 기록 특성, 산도의 세부적인 지형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⁴⁾

2. 산도의 판본과 구도

일반적으로 산도는 풍수고전의 해설편 및 비결서, 족보에 삽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산도만을 모아놓은 화책 또는 卷·軸·帖의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림의 형태는 목판본 및 석판본과 필사본이 주종을 이루며, 우리나라의 경우 왕실과 관련되는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채색본이 보인다. 윤홍기는 산도의 판본 및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산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판본 및 전체적인 구도는 산도를 연구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도의 전체적인 구도를 살피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산도는 책자로 발간되는 경우 대부분이 목판본이며, 중국에는 석판본이 많다. 일부 목활자본, 금속활자본의 책자도 있으나 산도의 그림은 목판본과 석판본 형태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후기에 발간된 비결서의 경우 필사본이 주류를 이루며, 중국의 풍수고전을 번역한 경우는 필사본이 아닌 목판본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地理人子須知』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석판본과 필사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대규장각 소장본인 『重訂地理人子須知』는 목판본 형태로 되어 있다.⁵⁾

또한 대부분의 산도는 목판본 또는 석판본의 경우 선대의 판본을 그대로 탁본하여 발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대의 판본을 분실하거나, 새롭게 발간하는 경우 선대에 발간했던 것을 필사하거나 혹은 다시 목판본 또는 석판본을 조각하여 탁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산형의 모습을 선대의 것을 모사하더라도 그리는 사람의 주관에 산도 속에 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꼭 선대의 것을 답습하지는 않는다.

아래의 <표 1>은 『地理人子須知』가 발간된 판본에 따라 같은 砂格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표 1>은 面體와 立體 그리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산도를 『人子須知資孝地理學』과 『精校地理人子須知』에서 발췌해서 비교한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혈처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玉帶砂의 경우 『人子須知資孝地理學』에는 立體로, 『精校地理人子須知』는 眠體로 표현되어 있으며, 사람을 뜻하는 貴人의 경우 전자는 木星體의 聳立한 모습으로, 후자의 경우 金星體의 원만한 종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복합적 구성의 산도인 龍樓鳳閣貴人의 경우 전자는 횡으로 장막을 치는 모습과 그 앞에 木星의 귀인을 표현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水星과 金星의 귀인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림 가장 위쪽의 장막은 횡적 장막이 아닌 종적 장막을 그리고 있다. 위의 사례는 동일한 책자에서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판본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도의 그림만 가지고 모든 사적을 확립적으로 확정하고, 그 이름을 명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地理人子須知』의 산도의 경우 제목과 그림, 山論으로 구분되는 삼단 구성이 주류를 이룬다. 그림의 구도는 四周의 單邊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상하좌우의 가장자리 여백에 글자를 기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내부를 살펴보면 상단에 횡으로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종으로 그 산도의 주인공을 기록하는데 이는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板本에 따른 『地理人子須知』 - 砂格圖의 비교

구분	玉帶	大貴人	龍樓鳳閣貴人
資孝地理學 人子須知	<p>玉帶</p>	<p>大貴人</p>	<p>龍樓鳳閣貴人</p>
精校地理 人子須知	<p>玉帶</p>	<p>大貴人</p>	<p>龍樓鳳閣貴人</p>

四周單邊 또는 상변의 내부에 자리 잡은 그림 여백에 水의 來去와 풍수적 형국과 주요 砂格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나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단순히 水의 來去 또는 주변 주요 사격 및 지리적인 위치만을 기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적으로 풍수지리적 형국명을 기록하는 것이다.



(좌) 華容劉尚書祖地圖, (우) 臨海謝皇后祖地圖

그림 1. 『精校地理人子須知』

<그림 1>은 『정교지리인자수지』의 산도를 발췌한 것으로 좌측은 華容劉尚書祖地圖이고, 우측은 臨海謝皇后祖地圖이다. 두 산도를 비교해보면 좌측의 華容劉尚書祖地圖는 그림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시점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산맥을 표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좌측 하단부 여백에 조종산의 來脈 및 좌향, 풍수적 형국명을 붙이고, 水의 來去를 언급하여 풍수적 입지조건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⁶⁾ 반면에 우측의 臨海謝皇后祖地圖는 그림의 구성을 좌측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림 여백에 묘지의 좌향이나 내맥 또는 풍수적 형국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물의 흐름과 지형만을 묘사하고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산도에서 내부 그림을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위의 두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된다. 즉 풍수적 내용과 형국명 등을 넣는 경우와 단지 거점지역의 도시 및 중요지형의 방위만을 나타내는 경우로 대분된다.

위의 특징 외에도 산도는 중요한 砂格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장법과 생략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묘사법은 族譜類의 산도에도 주로 사용되는 표현법으로 모든 산도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산도에는 별지에 山論을 기록하여 그림을 부연하여 설명한다.⁷⁾

3. 산도의 구성

1) 산도의 시점

산도에서 시점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과 모든 지형을 투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穴處를 중심으로 한 중요 지형만을 투시하는 반투시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산도는 혈까지 흘러가는 산맥의 조종적 연맥성을 강조하므로 수많은 산맥 중에서도 조종산에서 혈까지의 흐름을 강조하여 그린다. 그러므로 산도에서 시점의 전개방식은 조종산에서 혈까지 흘러가는 과정을 위에서 조망하듯 그리고, 시점의 흐름은 혈처에 멈춘다. 그리고 주변의 산맥들은 혈처 위에서 조망하듯 그리되 시점의 변화가 없으므로 연맥성이 아닌 혈처에서 바라보는 형상으로 입체적으로 그린다. 그러므로 혈처 주변 사격은 형상과 배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산도의 시점은 부감법을 사용하지만 산맥과 사물의 모습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처에서 관찰되는 모든 형상이 된다. 즉 풍수 공간 주변의 산들은 관찰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데 산도의 경우 穴體에서 관찰되는 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판단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적인 구도를 부감법에 반투시법을 보충하는 방식을 중심 묘사법으로 하고, 다중적인 초점에 의한 시점과 과감한 시점의 이동을 사용한다. 또한 다양한 시각적 표현은 혈처에서 관찰되지 않는 지형도 혈처에서 관찰되는 모습으로 가정하여 그릴 수 있게 한다. 또한 혈처를 중심으로 모든 지형이 조화롭게 배치

되는 효과도 준다.

산도에서 시점의 한계는 산도에서 혈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지형인 近景은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해서 그리는데 반해 혈처에 멀리 떨어진 中景, 遠景으로 갈수록 정확성이 떨어지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의 방위와 거점 도시와의 거리 등을 표현하는 경우에 간략하게 그 위치만을 기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2) 산도의 중심 지향적 표현

윤홍기(1992)에 따르면, 산도는 혈을 중심으로 표현한 中心指向的 지도이다. 그러므로 혈 주위의 모든 산은 혈을 향해 직립하거나 누워 있으며, 조종산의 경우는 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起伏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혈 중심의 구도에 관련성이 없거나, 혈 중심 배치에 방해가 되는 산맥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한다. 가령 조종산에서 來脈하여 혈을 맺은 산맥이 중심맥인 正龍이 아닌 傍龍에 해당되고, 그 내맥의 勢가 다른 주위 산맥보다 낮고 미세한 形勢라 하더라도 山圖에서는 주위 산맥들의 형태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조종산과의 연결성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택한다. 반면에 혈을 향한 내맥은 그 연결성과 勢를 과장해서 표현했다.

부감법과 과장법은 金正浩의 『大東輿地圖』에서도 잘 나타난다. 윤홍기(1991)에 따르면 『大東輿地圖』의 경우 비록 평야지대라 하더라도 그것이 正脈인 경우에는 모두 대담하게 연결하여 과장해서 표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산도의 그림 속에 새겨진 글자의 방향은 혈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즉 혈처를 중심으로 할 때 정면부분과 후면, 측면부분의 글자들은 배치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혈처가 바라보는 쪽에, 즉 혈의 정면부분에 배치된 글자는 대부분 반듯하게 쓰고, 반면에 혈의 뒷부분에 배치된 글자들은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혈을 중심으로 뒤돌아서서 보게 되면 결국 바르게 쓴 것과 같아지는 형상이다. 필요한 경우 어떤 글씨들은 가로 또는 세로로 쓰고 있는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했다. 하지만 모든 글씨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혈을 중심으로 서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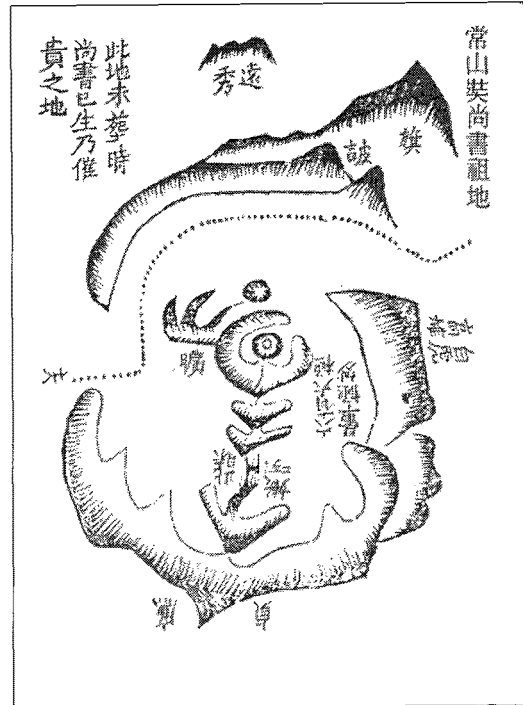


그림 2.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글자의 방향
常山契尚書祖地圖

이러한 다양한 배치는 <그림 2>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의 구도는 그림의 하단부에서 시작하는 산맥의 흐름이 가운데 위치한 혈을 중심으로 시점이 전개되는 과정을 세밀히 묘사하고 있으며, 혈은 지면의 상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혈에서 주변 지형을 관찰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지면의 상단을 바라보고 있는 혈을 중심으로 관찰할 때 혈의 아랫면에 배치된 글자들은 대부분 거꾸로 배치되어 있고, 혈에서 정면으로 바라보는 글씨는 바르게 쓰고 있다. 혈의 오른쪽에 '白虎高鳩' 이라고 쓴 글자는 옆으로 누워있으면서 몸의 방향은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 이것은 관찰자가 穴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보면 바른 글씨가 된다. 그리고 혈의 오른쪽 아래에 기록한 '穴有大量暈極妙'라는 글자는 혈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 뒤로 누워 있는 모습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산도에서 글씨가 혈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를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뒤를 받쳐주는 산을 중심으로 글자를 쓰기도 한다. 이것 또한 산도의 전체적인 구

성에서 본다면 혈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海東地圖』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海東地圖』의 군현지도를 살펴보면 지형지물의 표시방향이 정방향과 중심방향으로 표시된 반면에 하천을 지향하는 방향도 섞여 있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면에서 일관된 표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혈처를 중심으로 지형을 표현하려는 산도의 기본적인 도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산도의 방위기호와 투시점

현대 지형도에서 방위를 표시할 때 지도의 위쪽은 북향, 지도의 아래쪽은 남향을 가리키는 절대적 방위개념이다. 그렇지만 산도에서는 혈 중심으로來脈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표현하기 때문에 산도에서 방위성은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도에서 그림의 하단부에서 시작되는 산맥의 흐름을 택하든 상단부에서 시작되는 산맥의 흐름을 택하든 방위는 상대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산도에서 그림의 지면 위쪽이 북쪽이 되기도 하고, 아래쪽이 북쪽이 된다는 것이다. 『地理人子須知』에 삽입된 산도를 살펴보면 산맥의 흐름이 그림의 하단부에서 산맥이 시작되고, 혈이 그림의 상단부를 향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산도의 전체적인 방위가 북쪽을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산도에서는 방위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내맥이 들어오는 방향과 혈의 방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주요한 관점을 두고, 이 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도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림의 아랫면과 윗면을 반드시 남북으로 그려야 한다는 개념은 산도에서 찾을 수 없다.

산도의 구성에서 지면에 대한 절대적 방위가 없다는 이유로 산도에는 방위가 없다고 혹평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사실 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산도에서는 비록 현재의 지형도에서 표시되는 지면의 고정된 남북의 방향성은 없지만, 그림의 구성에서 혈과 내맥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그림의 지면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도는 전체적인 구도를 혈과 주위 砂格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방향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산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산도 속에 좌향을 표시하여 혈의 방향이 자연이 갖는 합리적 방향과 거슬리지 않은 길지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면에 표시되는 혈과 내맥의 방향은 남향 또는 북향 등 어느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의 상대성이 강하다. 이러한 산도의 고유한 성격을 간과하게 되면, 산도에는 지면에 표현하는 방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종래의 산도 연구와 讀圖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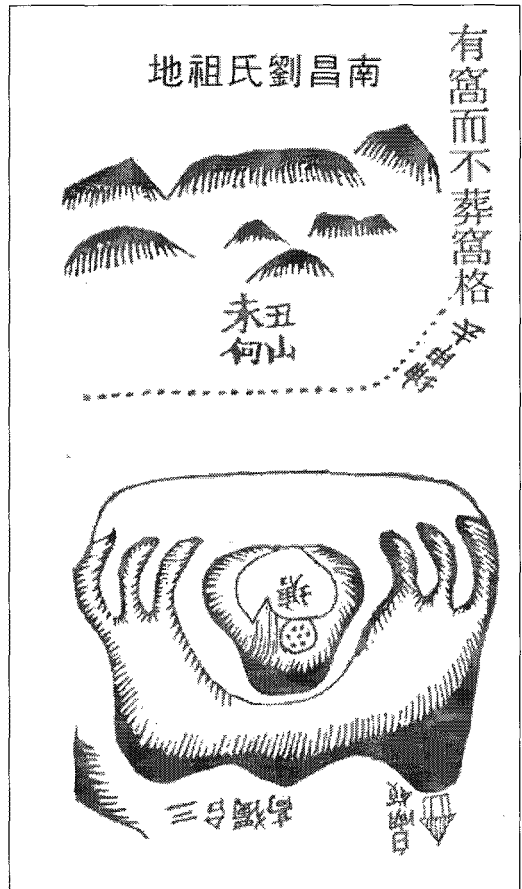


그림 3.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좌향의 표시
南昌劉氏祖地

산도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산도의 그

림 내부에 기록한 방위표시가 풍수지리 理氣法을 적용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오인하는 경우이다. 이런 점은 <그림 3>에서 확인된다. 이 산도는 '丑山未向, 坤申水去'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기법을 적용한 방위 표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사격에 적합한 좌향과 水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地理人子須知』에 삽입된 대부분의 산도는 形氣論과 物形論을 반영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기론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간혹 이기론을 주장하는 고전 해설본을 보면 산도에 내맥의 좌와 혈의 좌향, 水口의 向 등을 적어 혈이 이기론의 向法에 맞는 길지로 표현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산도에서 혈 중심적 방위가 아닌 혈 주변의 사격을 중심으로 그림을 구성하고 사격의 방위 및 朝山의 방위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산론 부분에 혈의 위치와 더불어서 혈의 좌향과 入首龍의 坐를 함께 기록하여 전체적인 산도의 방향을 알려 주는 경우도 있다.

산도의 투시점은 등고선을 사용하는 현대 서구 지형도에서의 투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현대 지형도의 경우 투시지점은 지형과 관련된 바로 위의 하늘이지만, 산도의 경우 투시점은 지도 중심에 있는 길지에서 보는 평지이기 때문이다. 윤희기(1992)에 따르면, 산도에 표현된 물길의 경우 투시점은 그 물길 바로 위의 하늘로 이해된다. 즉 산도의 전반적인 투시점은 지도의 중심인 혈처 위에서 보는 명당에 있는 반면에, 물은 주변 사격을 감싸고 돌아 어느 한곳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흐름의 끝의 하늘에 해당하는 부분이 투시점이 된다.

4) 산도의 축척

윤희기의 연구를 비롯한 종래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산도가 流域이나 보호하는 山들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분지를 포함하는 특정한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축척지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실제로 『地理人子須知』의 산도를 검토해 보면 축척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 산맥체계를 통하여 특정 지역을 혈처로 비정하여 개략적으로 그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혈이 위치하는 국면만을 그리는 경우도 많아 축척이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풍수적 명당국면을 표현하기 위한 산도의 구성이 대부분 현재의 대축척지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도의 구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당국면과 관련된 산맥들과 성 혹은 바다, 강 등을 그리면서 산도 구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과장하여 강조하기도 하고, 구성에 불필요하거나 명당국면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二重的 또는 多重的 축척이 생겨나게 된다. 축척지도가 아닌 그림지도에서 축척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단순한 목적에 의한 산수화기법의 산도에서 그 의미는 더욱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도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의식적인 과장법과 생략법에 의해 지형표현이 달리 나타날 수 있고, 근경과 중경, 원경의 세밀도 차이에서 전반적인 구성의 조밀함과 성감이 나타날 수 있다. 과장법과 생략법에서는 이중적 축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근경과 중경, 원경의 묘사 차이에서 다중적 축척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杭州高相公祖地圖(二重的 縮尺)

<그림 4>의 경우 산도에서 표현된 지형으로 정밀한 축척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도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면 가운데 혈처 중심의 지형표현과 근경에 해당하는 주변 거점도시의 표현이 극명하게 다른 이중적 축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의 구성을 세밀히 살펴보면 穴處가 위치한 내국 및 명당구성 공간을 형성한 산맥의 크기에 비해 근경의 거점도시인 浙江省⁸⁾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산도에서 행정중심지가 혈처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인식하여 그 크기를 사실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도의 구성이 이중적 축척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축척표현은 한국의 족보에 삽입된 산도에 그대로 답습되었다.

4. 山論의 기록과 특징

산도에서 명당국면을 표현한 그림 못지않게 山論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론은 그림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논증한다는 점과 그림 속에 넣을 수 없는 지리관 및 세계관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인문지리적 성격이 강한 고지도는 지도와 地誌를 함께 포함하는 경향이 많다. 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산도의 경우는 풍수적 자연관과 추상적인 發福論을 함축하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산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특히 풍수적 명당관은 그림만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림 여백에 부족한 점을 글로써 기록해 두는데 그림여백의 한계로 인해 간략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록의 한계점을 산론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山論의 서술방식을 보면 먼저 산도의 주인공이 위치한 묘지의 위치, 그리고 산맥의 조종적 체계, 풍수적 특징, 후손들의 발복 정도를 기록한다. 특히 그 묘의 위치를 기록한 지명과 거리 등은 그 당시의 역사와 거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며, 후손들의 발복 정도는 성리학적 종법의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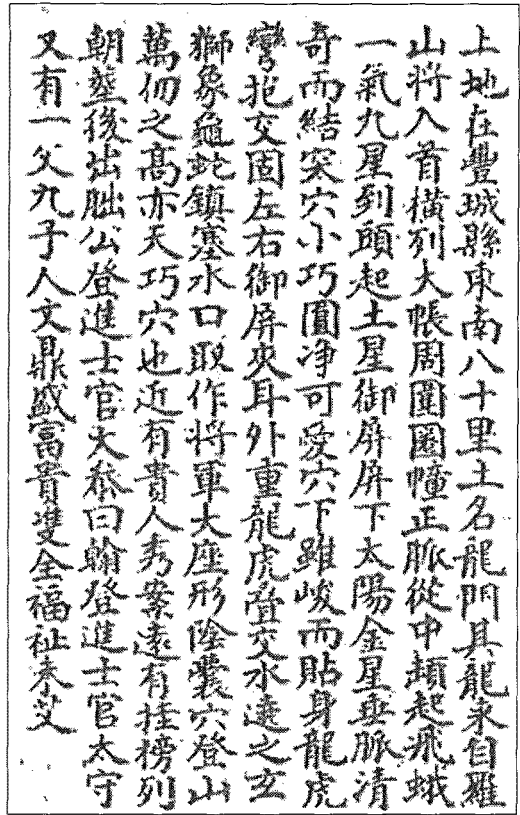


그림 5. 『精校地理人子須知』 - 豐城黃大參祖地圖의 산론

할 수 있다.

산론의 전개방식을 豐城黃大參祖地의 산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도의 주인공인 묘지의 위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묘지는 풍성현의 남동쪽으로 약 80리에 있는 용문이라는 마을에 위치한다고(上地在 豐城縣南東八十里土名龍門) 기록한데서 알 수 있듯이 주요 거점도시에서 거리와 마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확정짓는 방식은 모든 산도에서 반드시 지켜지고 있다. 단순화되고 추상적인 지명의 나열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방위와 거리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穴이 위치하고 있는 지명을 기록하는 방식은 그 위치를 더욱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산론을 기록하는 사람은 방위를 파악하는 능력과 거리를 산정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주변 자연지형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거점도시와 사례지와의 거리 및 방위까지 관찰하고 있다는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묘지까지 이어지는 산맥 체계인 용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종산에서 혈처까지의 龍脈의 흐름과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⁹⁾ 종산인 羅山에서 시작하여 많은 변화를 거치고 九星到頭 후에 토성이 御屏, 즉 병풍을 두르고 병풍 아래에 太陽金星이 서있다. 이 금성이 아래로 맥을 내려 小突을 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상세한 산맥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分水界의 산맥체계에 대한 자연인식과 산맥의 체계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간맥과 지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당시에 산론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에 능통한 풍수지관이었다. 당시 지관은 풍수지리적 자연인식과 더불어 광대한 지형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당국면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은 풍수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모든 산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산론을 보면 청룡백호가 둘러싸고 물은 之玄字로 흘러가는 명당국면을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풍수지리적 형국명을 將軍大座形의 陰穴이라 기록하고 있다.¹¹⁾

마지막으로 풍수적 존평을 발복의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묘지에 장사를 지낸 후 肱公을 낳고, 비공이 진사에 올라 후에 높은 관직에 올랐으며, 후손 중에 翰 또한 진사에 올라 벼슬이 태수에 이르렀고, 후손이 많아지고 부귀가 다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이러한 발복적 논평은 성리학적 사고와 맞물려 족보에 삼입된 산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유명한 진 조상을 풍수적 명당에 모시고, 그 조상을 통하여 종종 구성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산론에서 산맥의 위계적 체계나 장사를 지낸 후 후손들의 역할은 중법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위계질서는 종종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와 내규와 연결된다. 이러한 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산론에서 후손의 발복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의 경우 족보류의 산도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

5. 산도구성의 세부적 고찰

1) 산도의 入首표현

풍수지리에서는 부모산과 자식으로서 결과물인 혈을 만드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특히 부모산에서 혈까지의 과정은 산도에서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祖山에서 星體로 들어가는 것을 入首라 하는데 산도에서는 이 입수의 형태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산도만의 특이한 도법을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입수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산도의 시점을 입수를 따라 흘러가는 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입수의 형태는 회화지도에도 영향을 주어 해동지도와 같은 군현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윤홍기의 연구(1992)에서는 입수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의 중요한 표현기법 중의 하나로서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특히 입수부분의 묘사는 산맥을 신체와 같은 유기체적 구조로 인식하여 태조산에서부터 주산까지 연면히 이어져 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풍수지리 산도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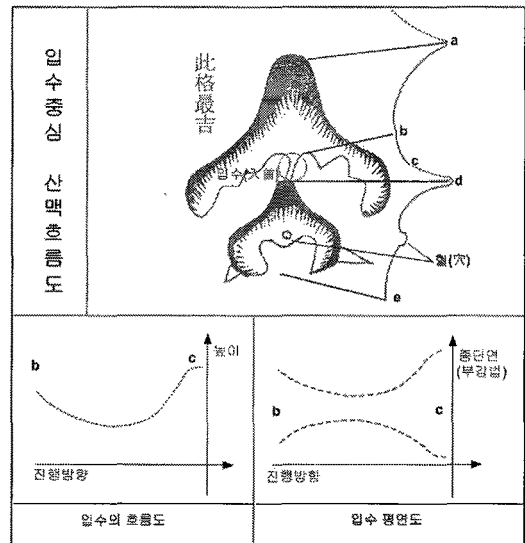


그림 6.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入首의 흐름도와 평면도

위의 그림은 부모산에서 성체로 들어가는 입수의 모양을 그래프로 설명한 것이다. 산도형식의 입수 흐름도에서 입수부분을 크게 보면 a~d까지 이나 산맥의 유기체적 표현을 위한 입수부분은 b~c 부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풍수지리에서는 結咽이라고 한다. 위의 그래프는 이곳을 설명한 것이다. 왼쪽 그래프는 b~c의 흐름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높낮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b~c의 흐름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입수의 형태를 지리인지수지에서는 오격으로 나누고 直龍入首, 飛龍入首, 橫龍入首, 回龍入首, 潛龍入首로 소개하고 있다. 직룡입수와 비룡입수는 산을 보는 관찰자는 인식할 수 있어도 개념도로 그 모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룡입수 또는 비룡입수를 제외한 기타의 횡룡입수, 회룡입수, 잠룡입수는 산도에서 그 특징을 상세히 묘사하여 입수용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 특징을 입수오격도를 통하여 살펴보면 직룡입수와 비룡입수는 위의 입수도와 같은 흐름이라 할 수 있고, 횡룡입수는 조종산에서 횡으로 입수하는 모습이고, 회룡입수는 본신이 뻗어 나온 조종산을 돌아보는 모습이다. 잠룡입수는 평지용의 흐름으로 그 특징을 대변할 수 있게 위의 개념도에서는 그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의 洪忠宣公祖地圖는 회룡입수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의 왼편에서 시작하는 산맥의 흐름은 입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穴이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이것은 그림의 전체적인 시점이 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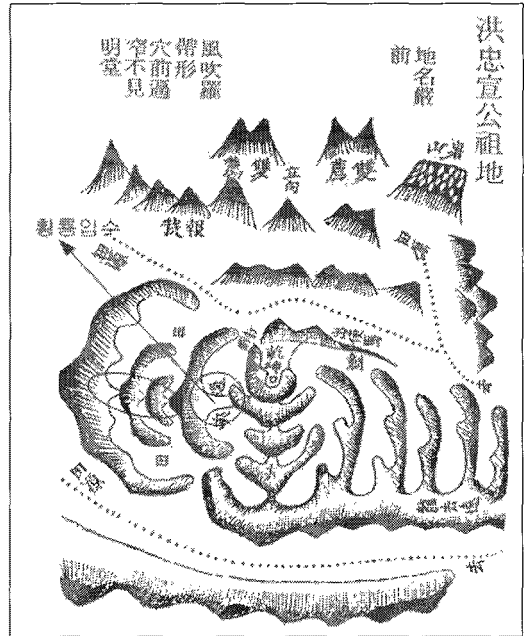


그림 8.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복합형 산도의 입수표현(洪忠宣公祖地圖)

의 하단부에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적인 기록은 회룡입수인지 직룡입수인지 혼돈을 줄 수 있으므로 산맥의 흐름 중간에 '去' 또는 '龍去遠'이란 글자를 넣고 있다. 위의 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도는 입수오격을 기준으로 산도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관찰한 자연현상이 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입수오격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도록 그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그림에서 유기체적 산맥체계를 입

직룡입수	비룡입수	횡룡입수	회룡입수	잠룡입수
首入龍直	首入龍飛	首入龍橫	首入龍回	首入龍潛

그림 7. 『人子須知資孝地理學』 - 入首五格圖

수오격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그리더라도 반드시 입수부분의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지는 않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인 두 개의 실선에 의한 묘사를 취한다. 『地理人子須知』의 몇몇 산도에서도 필연적 연맥성은 생략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후대에 발간된 지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지 산도가 연맥성을 생략하고 단지 개별산들의 순차적 배치로 연맥성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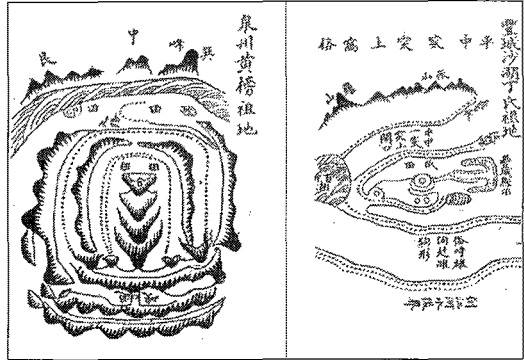
2) 水의 표현

산도에서 물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풍수고전 『葬書』에는 “風水之法得水爲上藏風次之”라 기록하여 장풍보다는 득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풍수지리에서 물은 중요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산도에서도 반드시 물을 언급하고 있다. 『지리인자수지』의 산도에서 물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더불어 수의 來去를 글로 기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의 표현은 점선과 실선의 물의 조합과 水波描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당국면 내의 물의 흐름은 대부분이 계천을 이루고 있으므로 작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내당국면의 물이 큰 경우와 명당국면 바깥쪽 큰물을 묘사하는 경우는 두 개의 점선 및 점선과 실선의 조합 또는 두개의 시설 사이에 점선을 넣는 형태로 묘사한다. 호수, 바다, 대강 등을 표현할 때에는 파도를 중심 테마로 하므로 수파묘로서 출렁이는 물결의 윤곽으로 나타낸다. 그 모양은 물결의 윤곽을 나타내는 곡선들과 그 안에 더해진 짧은 선들이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내려오는 형태로 표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파의 선들이 각기 방향을 달리하여 엇비슷이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수파표현을 윤희기(1992)는 수룡의 비늘(the scales of the water dragon)로 명명하기도 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유정하고 고요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을 꺼려하고, 물의 흐름을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 지형과 다른 환포의 과장을 동반하게 된다. 물의 표면 또한 고요한 것을 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수파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을 산도에서는 지양한다. 이러한 수파의 표현법은 산도의 도법으로 정착되고 정형화되었다.¹³⁾ 그러나 물의 크기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른 정형화된 모식도를 만들 수는 없다.



(좌)泉州黃榜祖地 (우)豐城沙湖丁氏祖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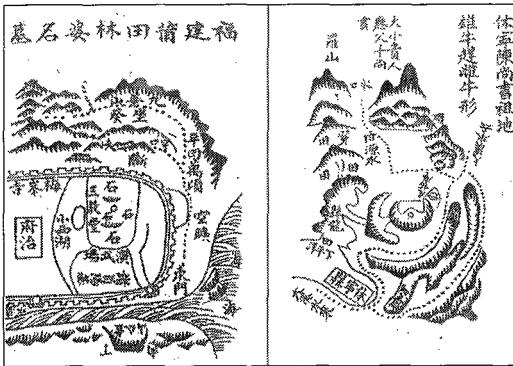
그림 9. 『精校地理人子須知』 - 水의 표현기법

위의 그림은 수의 표현기법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좌측의 그림은 물의 크기에 따라 점선의 숫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우측의 그림에서는 두 개의 실선사이에 위치한 점선으로 물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두 개의 그림 모두 수파묘로 물결의 윤곽을 나타내는 곡선들과 그 안에 더해진 짧은 선들이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내려오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풍수적 명당관에 부합하는 물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그림인 泉州黃榜祖地의 산도를 보면 성체 안에서 혈을 감싸고 흐르는 물의 표현은 생략하고 조종산 사이에서 흐르는 물은 하나의 점선 또는 두 개의 점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종산 중심의 수의 흐름은 산도의 일반적인 묘사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기법은 수의 흐름을 내국 중심으로 한 내수의 표현이 아닌 외국 중심의 외수 표현으로 모든 산도에서 채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는 內水口의 내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풍수이론과 상반되는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축척을 선호하는 산도에서 축척에 따른 표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풍수이론 자체와 모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外水口 중심의 외수표현은 파구의 길흉을 중요시하는 내수구 중심의 이기론이 아니라 형기론 중심의 표현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시 및 성, 도로의 표현

산도에서 주요 도시를 표현할 경우 먼저 성을 그리고 그 안에 도시의 이름을 첨가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의 실선 및 원형의 실선으로 간략하게 경계를 그리고 경계 안에 도시이름을 써 넣기도 했다. 이러한 표현은 아래의 그림에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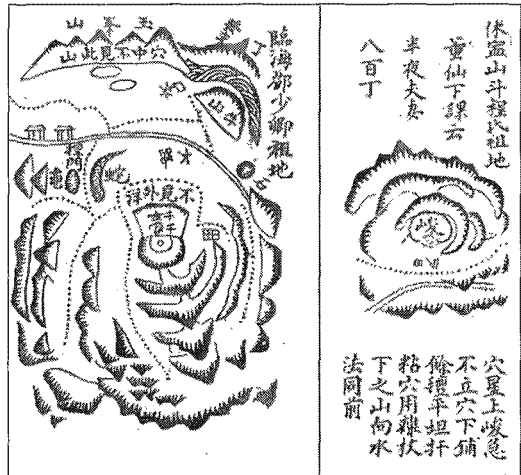


(좌) 福建莆全林婆名墓 (우) 豐城沙湖丁氏祖地
그림 10. 『精校地理人子須知』 - 성 및 마을의 표현

福建莆全林婆名墓의 산도를 보면 그림의 가운데에 복건성을 감싸고 있는 城을 그리고 산도의 중심테마로 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의 특징을 살리는 방법으로 여장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복건성의 관청을 상징하는 府治는 사각형의 테두리를 두르고 글자를 기록하였다. 豐城沙湖丁氏祖地의 산도는 그림 중심에 혈을 배치하고 원형적 구도로 풍수적 안정감과 풍만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좌측 하단부에 거점도시인 休寧縣은 사각형의 실선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다. 혈처 중심의 지형표현에서 주변 거점도시의 위치와 방향성만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福建莆全林婆名墓에서와 같이 산도의 중심에서 세밀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지역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山과 都市의 二重的 縮尺을 발생하게 했다.

산도에서 도로의 표현은 풍수적 명당국면을 완성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위치를 확정하여 지도로서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조상의 묘지를 찾기 위해서는 도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묘지 주변의 도로, 거점도시와 연결

된 간선도로의 표현은 산도의 위치와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후손들이 도로를 통하여 지리적인 위치를 비정하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산도에서 도로는 지도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도에서 묘지 주변의 모든 도로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확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細路는 생략했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지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묘지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두개의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⁴⁾ 산도에서 도로를 그리는 경우 풍수지리에서 도로는 水로 보는 영향으로 직선보다는 곡선의 흐름을 선호하고 있다.



(좌) 臨海郡少卿祖地 (우) 休寧山斗程氏祖地
그림 11. 『精校地理人子須知』 - 도로의 표현

위의 산도는 도로를 두 개의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臨海郡少卿祖地의 산도를 보면 도로는 묘소 바깥쪽에 있는 외명당을 횡으로 유연하게 흐르고 있고, 도로표시 아래에 대로大路라 적어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림의 왼쪽 도로가 끝나는 부분 도로 위에 두 개의 집을 그리고 있는데, 묘지를 찾는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고, 지리적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여기서 도로는 지도로서 위치설명과 명당국면을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우측의 休寧山斗程氏祖地 산도는 혈처에서 아주 멀리 도로를 횡으로 그리고 있으며, 좌측의 산도와 다르게 도로를 뜻하는 글자가 없다. 그러므로 산도에서 도로는 지

리적 위치를 비정하는 역할보다는 묘지의 명당국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 그림으로 보인다.

4) 혈의 세부적 표현

산도에서 穴(geomancy cave)은 작은 원(O)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도에서 보이는 작은 원은 혈로서 태극을 뜻하며 산도의 중심을 이룬다. 이것을 太極暈이라 한다. 그런데 이 작은 원을 확대하여 관찰해 보면 <그림 12>에서처럼 大極分陰分陽地圖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되는 제일 위쪽의 눈썹형태의 圓暈은 좌우의 陰陽分介로서 乘金¹⁵⁾에 해당한다. 『地理人子須知』에서는 이것을 天輪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림의 양편의 글자 아래 좌우로 조그마한 물길 이 있는데 이것을 水道라 명기하였다. 이것은 相水¹⁶⁾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지의 혈처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 가운데에 있는 운형은 혈판에 해당하며, 그 속에는 上標弦, 暈標心, 下標弦이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혈판 속에는 혈토가 있기 때문에 음양이 조화되고 기가 응축된 곳으로 판단되어 葬口가 되는 것이다.



(좌) 大極分陰分陽地圖 (우) 臨海王侍郎祖地圖
그림 12. 『精校地理人子須知』 - 穴의 세부적 표현

眉月모양의 승금은 우리나라의 산도에서 혈처를

표현하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¹⁷⁾ 이것은 臨海王侍郎祖地圖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眉月모양의 선이 몇몇 산도에서는 혈 아래에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혈 아래에 승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橫帶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약간의 구분된 경사도를 나타낸다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태극분음지도의 아래의 그림은 태극훈으로 가정된 훈심의 모양을 음양에 따라 설명한 그림이다. 산도에서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태극훈을 그리는 경우는 없으므로 분석은 생략한다.

5. 結 論

山圖는 穴處 주변의 지형을 풍수적 명당공간으로 형상화한 지도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명기되고 있으나 풍수적 명당공간을 설계하고 기록한 그림지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명나라 때 발간된 풍수서인 『地理人子須知』에 수록된 산도를 분석하여 지형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도의 판본은 목판본 및 석판본, 필사본이 주종을 이룬다. 동일한 그림을 묘사하더라도 판각 또는 그리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나타난다.

산도의 시점은 부감법과 반투시법이 사용되었다. 祖宗脈의 흐름에 따라 시점이 이동되고, 시점의 이동은 혈처에서 멈추는데 조종맥은 穴處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배치된다. 또한 혈처 앞을 구성하고 있는 朝山들은 혈처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혈처에서 관찰되지 않는 산맥들은 시점이동을 통하여 관찰된 모습이 표현된다. 이러한 시점은 산도를 중심 지향적 지도가 되게 하였고, 중심 지향적 표현은 과장법과 생략법을 동반하게 된다. 과장법과 생략법은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의 지형 표현에서도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중심 지향적 배치는 주변 자연지형과 내부에 명기하는 글자들이 혈처를 향해서 배치된다.

산도는 현재 지형도와 같은 절대방위를 고집하지 않는다. 단순히 조종적 산맥체계와 穴星을 배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된다. 산도의 지면에서 사용되는 방향은 그리는 사람의 주관과 명당

공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선택되므로 방위성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산도에는 축척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으나 명당공간과 주변의 거점지역의 축척이 다른 二重的 축척이 사용되었으며, 근경·중경·원경의 배치가 다른 多重의 축척이 사용되었다.

山論은 산도 내부 지면의 유한성에서 오는 표현의 한계를 해소해 준다. 산론의 서술 방식은 먼저 산도의 주인공이 위치한 묘지의 위치, 산맥의 조종적 체계, 풍수적 특징, 후손들의 發福 정도가 기록된다.

산도의 세부적인 표현법으로는 특이한 것은 산맥의 入首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입수부분이 강조된 것은 모든 산도 및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물의 표현은 점선과 실선, 그리고 산수화의 영향을 받은 水波描로 통일되어 있었다. 도시 및 도시를 둘러싼 성과 도로는 일정한 격식에 의해 표현된다.

주

- 1) 조선왕조 실록 太祖 3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1月 2日(戊申) 1번째 기사를 보면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 권중화(權仲和)가 전라도 진동현(珍洞縣)에서 길지(吉地)를 살펴보고 산수형세도(山水形勢圖)와 계룡산 도읍지도를 바치는 내용이 나온다. (戊申/胎室證考使 權仲和 還, 上言: “全羅道 珍洞縣, 相得吉地.” 乃獻山水形勢圖, 兼獻 楊廣道 雞龍山 郡邑地圖). 조선 초기에 태실지를 그린 그림을 산수형세도로 명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명칭은 산도로 축약할 수 있다. 다음 내용으로 계룡산 도읍 지도를 바쳤다는 기록으로 보아 권중화가 바친 것이 한 지역을 그린 그림지도로 전체적인 구도가 산도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자료는 조선 초기 국가적 사업에 산도가 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 2) 崔陽奎, 2006, 中國 宗譜와 朝鮮 族譜의 比較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5. 宗譜는 일반적으로 序文, 凡例, 目錄, 世界·世表, 派語, 原流·宗派, 誥勅·像贊, 別傳·墓誌, 祠堂記, 家規·宗約, 家訓·家範, 義田記·義莊記, 墓記·墓圖, 傳記, 藝文·著作, 志, 雜記, 修譜姓氏, 五服圖, 餘慶錄, 領譜字號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분류체계에 墓記와 함께 墓圖, 즉 山圖가 보인다.
- 3) 풍수지리의 발생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으나 산도의 발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증된 바가 없다. 현재 서울대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에 소장된 산도관련 자료를 보면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산도 발생 시기에 관한 연혁은 찾을 수 없다.
- 4) 中國 古典의 경우 판본(板本)에 따라 산도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나라 때 서진계·서선술 형제의 저작인 『地理人子須知』경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대만에서 발행한(2000년) 『精校地理人子須知』는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을 기본으로 출간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국석판본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간사년미상-古1493-14(조선시대)로 추정]과 같은 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동규가 번역한 『풍수지리인자수지』는 『人子須知資孝地理學』을 번역한 것인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중국목판본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간사년미상-古1493-97(조선시대)로 추정]과 같은 산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 동일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만에서 발행한 석판본인 『精校地理人子須知』의 산도와 목판본인 김동규 역 『風水地理人子須知』의 산도를 같이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석판본은 『精校地理人子須知』로, 목판본은 『人子須知資孝地理學』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地理人子須知』는 이 두 가지 책을 통칭하는 말임을 밝혀둔다.
-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중국석판본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의 自序를 보면 嘉靖 甲子(1564년)에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목록을 보면 乾坎長震巽離坤兌의 8集 39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坤集과 兌集을 제외한 나머지 6집은 모두 형세론의 관점에서 풍수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형세론 관련 각冊은 풍수적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풍수 개념도와 풍수적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사례지 산도를 반드시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地理人子須知』의 풍수 개념도와 산도는 판본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다르고 삽입되는 산도의 수량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地理人子須知』의 풍수 개념도와 산도의 표현방식은 중국의 형세론적 풍수서와 우리나라의 비결서 및 풍수관련 서적에 비추어 봤을 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례지 산도의 표현방식은 우리나라 族譜類 산도 제작방식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6) 그림 하단의 내용을 보면 坤에서 落脈하여 丁坐癸向을 하였고 飛鳳形이라 하였다. 또한 혈 앞의 外水로 큰 강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坤頂落脈坐丁向癸取飛鳳形大江東去”) 그림의 좌측 중간에 內水가 서쪽 방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內水西流去”) 또한 주산에서 峻急하게 來脈하고 강에 묘지를 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7) <그림 1>의 山論에는 묘지의 위치, 龍의 발원처, 砂格 및 풍수형국을 설명하고 마지막 논평으로 후손들

- 의 발복 정도를 밝혀 묘지가 풍수적 명당인지의 여부를 상술하고 있다.
- 8) 산도에서 그림의 좌측에 그려진 절강성은 아주 세밀하게 표현되었는데 성의 여장부분과 성문, 누각을 상세히 그린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안에 절강성이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 9) 龍脈의 흐름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祖宗의 산맥체계를 기록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종적 종속성을 각인시켜 성리학적 종법체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 10) “其龍內自羅山將入首橫列大帳周圍圈幢正脈從中頓機飛蛾一氣九星到頭起土星御屏下太陽金星垂脈清氣而結突穴小巧圓淨可愛”
 - 11) “穴下唯峻而貼身龍虎彎抱巧固左右御屏夾耳外重龍虎疊交水透之玄獅象龜蛇鎖塞水口取作將軍大座形陰囊穴”
 - 12) “葬後出岫公登進士官大參曰翰登進士官太守又有一父九子人文鼎盛富貴雙全福祿未艾”
 - 13) 안휘준, 2003, 옛 지도와 회화,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성출판, pp.192-201.
조선전도를 위시한 도면식 지도의 경우 15세기부터 끈질기게 표현되어 왔던 수파묘는 17세기 후반에는 바다의 물결들이 마치 두 손을 깎지 낀 것처럼 마주하는 특이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수파묘는 17세기에 고안된 새로운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18세기 중엽부터는 수파는 수파묘 대신에 푸른색의 선명으로 대체되었다. 도면식 지도의 이러한 변화는 산수화 기법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14) 산도에서 도로를 그리는 경우 반드시 두 개의 실선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실선과 도로 또는 官路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변 지형을 표현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경우 글자로써 그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있다.
 - 15) 乘金: 穴 자리임을 알아맞히는 증거로 金을 탄다고 하는데, 金이란 生氣를 일컫는 말로 혈 뒤에 등글게 솟은 자리를 말한다.
 - 16) 相水: 乘金 아래에서 분류된 물이 혈의 양쪽을 내려와 혈 앞에서 합쳐지는데 혈관을 경계 짓는다.

- 17) 臨海謝皇后祖地圖의 그림 가운데에 혈처로 비정된 원형을 표시하고 원형 위에 眉月 모양의 乘金을 그리고 있다.

文 獻

- 精校地理人子須知, 徐善繼·徐善述, 明代(영인본, 2000 대만발행)
-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간사년미상-古1493-14]
- 重刊人子須知資孝地理心學統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간사년미상-古1493-97]
- 김동규(역), 1992, 『풍수지리인자수지』, 명문당
- 안휘준, 2003, 옛 지도와 회화,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성출판
- 盧禎植, 1977, 韓國古地圖 資料 및 그 研究成果와 새 方向摸索을 위한 一研究, 대구교대 논문집, 13.
- 崔陽奎, 2006, 中國 宗譜와 朝鮮 族譜의 比較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홍기, 1991, 대동여지도의 지도축보론적 연구, 문화역사지리, 3.
- Hong-key, Yoon, 1992, The expression of landforms in chinese geomantic maps, *The Cartographic Journal*, 29.
- 교신 : 성동환(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풍수지리관광학과, dhsung@dhu.ac.kr, 전화: 053-819-1328)
Correspondence : Sung, Dong-hwan, Department of Feng-shui&Tourism, Daegu Haany University(dhsung@dhu.ac.kr, phone: 053-819-1328)
- (접수: 2009.12.4, 수정: 2010.1.7, 채택: 2010.1.15)